

1 월 구역예배(주후 2013년 1월 18일, 금)

- 1. 본 문: 창세기 35 장 1-15 절**
- 2. 제 목: ‘신앙의 승리자, 인생의 성공자’**
- 3. 찬 송: 388, 389, 390 장**

승리와 성공은 다릅니다. 승리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고 성공은 세상에서 잘 되며 출세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죄와 싸우고, 자신과 싸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싸움은 이겨야 자유롭습니다. 이기지 못하면 생각, 감정, 자존심에 끌려 다니게 됩니다. 끌려 다니면 풍성한 주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아름다운 성품이 만들어 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올해는 신앙에서 승리하고 인생에선 성공하는 복을 누리시다.

본문에서 야곱은 빈손으로 아버지 집을 떠난 지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교회였던 그의 가정엔 더러운 우상과 미움, 다툼으로 채워진 실패한 모습이었습니다.

A.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1)

1.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때는 언제입니까?((창 27:27, 28)
2.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때는 언제입니까?(창 28:16)
3.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게 무엇입니까?(창 28:20-22)
4.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하십니까?(35:1)

B. 야곱의 결단(2-4)

1.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2)
2. 3절에서 어디로 올라가서 무엇을 하자고 합니까?
3. 야곱의 가족들이 구체적으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4)
4. 버릴 것 버리고 고칠 것 고치고 출발한 야곱의 일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5)

5. 벤엘로 돌아가면 야곱은 무슨 일이 있을 것을 확신했나요?(9)

6. 우리가 하루하루 별일 없이 잘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손으로 늘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버리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C. 하나님의 축복(9-15)

1.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무엇입니까?(10)

2. 두 가지의 축복을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11-12)

*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기 위해 하늘 군대를 동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무기를 동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순종이 사탄을 이긴 것이며 그 승리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2 월 구역예배(주후 2013년 2월 15일, 금)

1. 본 문: 사도행전 2장 42-47절

2. 제 목: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찬 송: 245, 246, 376 장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복음이 힘 있게 전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믿는 무리의 수가 날마다 증가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그릴 때, 당연히 초대 사도행전 교회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과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본문은 초대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모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A.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42)

1. 저희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는가요?

2. 사도는 어떤 사람이며 오늘의 사도는 누구를 가르킨다고 생각하나요?

B.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42)

1. 저희가 무엇하기를 전혀 힘썼나요?

2. 사도행전 1 장 14 절에 의하면 사도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과 아우들로 더불어 무엇을 하였나요?

C.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43)

1. 43 절의 '사람'은 44 절의 '믿는 사람'과 대조되는 것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사람마다 어떤 반응을 나타냈나요?

2. 사도들로 인하여 무엇이 많이 나타났나요?

D.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44-45)

1.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하였나요?(44)

2. 재산과 소유를 어떻게 하였나요?(45)

E. 모이기를 힘썼습니다.(46)

1.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하기를 힘썼나요?

2. 히브리서 10 장 25 절은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나요?

F. 사랑으로 교제했습니다.(46)

1. 46 절의 떡은 단순히 교제의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떡을 말하고 있나요?

2.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나요?

G.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47)

1.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무엇을 했나요?

2. 바울 사도는 엡 5:19, 20 절에서 무엇을 권면하고 있나요?

H.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47)

1. 누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송했나요?

2. 누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나요?

* 신앙은 뜨거워야 합니다. 교회도 뜨거워야 합니다. 내 신앙, 우리 교회의 뜨거운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이뤄지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사모합니다.

3 월 구역예배(주후 2013년 3월 15일, 금)

1. 본 문: 요한복음 17장 1-26절

2. 제 목: 예수님의 중보 기도

3. 찬 송: 487, 484, 483 장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를 다리 놓기 위해 드린 중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온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A. 자신을 위한 기도(1-5)

1. 왜 아들을 영화롭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나요?(1)

2. 아버지께서 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했나요?(2)

3. 무엇이 영생이라고 했나요?(3)

4. 예수께서 무엇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 했나요?(4)

B. 제자들을 위한 기도(6-19)

1. 6 절의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나요?

2. 저희는 말씀을 받고 무엇을 알고 믿었다고 했나요?(8)

3. 예수께서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누구들을 위함이라 했나요?(9)

4. 11 절에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저희를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나요?

5. 왜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다 했나요?(14)

6. 15 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오직 무엇하시기를 위함이라 했나요?

7.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같이 나도 어떻게 하셨다 했나요?(18)

487, 483, 4

C. 온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20-26)

1. 예수께서 비옵는 것은 누구들도 위함이라 했나요?(20)

2. 21 절의 저희는 누구를 가리키며 ‘저희’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셨나요?

3. 내게 주신 영광을 왜 저희에게 주었다고 했나요?(22)

4.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나요?(23)

5. 내게 주신 자도 어디에 있어 아버지께서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 했나요?(24)

6.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함은 무엇하기 위함이라 했나요?(26)

4 월 구역예배(주후 2013년 4월 12일, 금)

1. 본 문: 요한복음 20 장 19-29 절

2. 제 목: 부활하신 예수님

3. 찬 송: 155, 157, 159 장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는 기쁨의 소식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배반했던 제자들을 찾아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평강을 주시고 전도의 사명을 주시며 성령을 주십니다. 이 사명이 부활의 증인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A.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19-21, 26)

1.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나요?(19)

2. 본문 가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이 3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찾아봅시다.

3.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나요?(20)

B.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도의 사명을 주십니다.(21)

1.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어떻게 하신다 했나요?(21)

2. 요한복음 17 장 18 절에 무엇이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나요?

C.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24-29)

1.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하지 않은 제자가 누구인가요?

2.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무엇이라고 했나요?(25)

3.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26)

4.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27)

5. 28 절에 도마가 무엇이라고 신앙을 고백했나요?

6. 예수님께서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무엇이라고 하셨나요?(29)

D. 삶의 적용

1. 여러분은 나의 죄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습니까?

2. 내 마음에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기쁘게 살고 있습니까?

3. 총동원 전도 주일에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이름을 적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5 월 구역예배(주후 2013년 5월 17일, 금)

1. 본 문: 에베소서 5 장 22-33 절, 6 장 1-4 절

2. 제 목: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는 길

3. 찬 송: 304, 305, 333 장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제도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존재하는 동안 가정도 계속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으며 존속하는 가정조차도 행복을 잃어버리고 명맥만을 유지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두 축인 부부의 윤리와 부모와 자녀 간의 윤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비결을 살펴봅시다.

A.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5:22-24)

1.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했나요?(22)
2.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23)
3. 24 절에 어떻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나요?

B.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5:25-33)

1.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했나요?(25)
2.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26-27)
3.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무엇같이 하라 했나요?(28)
4.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 했나요?(28)
5.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무엇과 같이 한다 했나요?(29)
6. 사람이 누구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리 크도다 했나요?(31)
7. 33 절에 부부의 윤리에 대해 무엇이라고 결론 짓고 있나요?

C. 부모들에게 주는 교훈(6:4)

1.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 했나요?

2. 오직 무엇으로 양육하라 했나요?

* 1) 아내로서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있습니까?

2) 남편으로서 아내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고 있습니까?

3) 부모로서 자녀를 노엽게 한 적이 있죠?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6 월 구역예배(주후 2013년 6월 13일, 금)

1. 본 문: 로마서 8장 1-11 절

2. 제 목: 성령 안에서의 삶

3. 찬 송: 172, 178, 173 장

로마서 7장에서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내적 갈등에 대해 설명한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놀라운 해방 선언을 한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과거 육신에 속하여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와 같이 육신을 좇아 살지 말고 성령을 좇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살아가는 거룩한 삶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이란 어떤 삶을 가리킵니까?

A.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 받은 삶입니다.(1-2 절)

1.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했나요?(1)

2. 2절에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B. 성령을 좇아 사는 삶입니다.(3-8 절)

1. 육신을 좇는 자와 영을 좇는 자는 각기 무슨 일을 생각한다고 했나요?(5)

2.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결과는 무엇인가요?(6)

3.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나요?

4.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나요?(8)

C.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9-11 절)

1. 9 절에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2. 누구든지 무엇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나요?(9)

3.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어떤 것이라 했나요?(10)

4. 11 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어떻게 하시리라 했나요?

D.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각 사람에게 임하신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마음은 있어도 몸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 분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능력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신 여러분, 이제 그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동시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권능을 사용합시다.

전도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시다.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전도와 선교를 위해 우리 삶을 새롭게 헌신합니다.

7 월 구역예배(주후 2013년 7월 12일, 금)

1. 본 문: 시편 1 편 1-6 절

2. 제 목: 복 있는 사람

3. 찬 송: 488, 489, 500 장

시편 1 편은 시편 전체를 여는 장으로, 시편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시편 전체의 서시라고도 합니다. 본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 대한 삶의 자세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면 우리의 영복과 영벌을 결정하는 기준이 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무엇이 복인지를 알아야 하며 또 그 복을 얻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가져야 할 행실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I. 복 있는 사람이 피할 길(1)

- 1.
- 2.
- 3.

II.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2)

1. 복 있는 사람은 오직 무엇을 즐거워 하나요?
2.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는 자인가요?

III. 복 있는 사람의 행통함(3)

1. 복 있는 사람은 무엇과 같다고 했나요?
2. 그 행사가 다 어떠하리라 했나요?

IV. 악인(4-6)

1. 악인은 오직 무엇과 같다 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4)
2. 5 절에 악인이 무엇을 견디지 못한다 했나요?
3. 죄인이 어디에 들지 못하리라 했나요?(5)
4. 6 절에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어떻게 비교하고 있나요?

V. 적용합시다.

1.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2. 지나간 삶을 돌이켜 볼 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끊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어 봅시다.

* 의인과 악인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아니냐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내 주위에 있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시급히 할 일이 무엇인가요?

8 월 구역예배(주후 2013 년 8 월 9 일, 금)

1. 본 문: 요한복음 13 장 1-17, 34-35 절

2. 제 목: 사랑의 새 계명

3. 찬 송: 405, 411, 412 장

기독교가 인류에게 가르치는 가장 고귀한 사상은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니라 실천과 생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치실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을 친히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I.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1-17)

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무엇을 하셨나요?(1)
2. 대야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한 마디로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나요?
3. 시몬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하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나요?(8)
4. 베드로가 “주여 내 발 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하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5. 14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 하셨나요?
6. 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 했나요?(15)

7.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어떠하리라 했나요?(17)

II.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34-35)

1. 34 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무엇인가요?

2. 35 절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알릴 수 있나요?

*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의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 주셔야만 살릴 수 있는 게 내 생명입니다. 놀라운 사랑이며,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당신과 내가 받고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랑에 보답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사랑엔 조건이 없습니다. 이해와 용서 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 해 보지 않겠습니까?405,411,412